



“제주도의 재밋섬 건물 매입은 폭거”

제주도의회, 15일 제407회 임시회 문광위 회의
의원들 “행정불통의 전형적인 사례” 한 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 일환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행정불통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폭거’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재밋섬 건물을 사야하는 이유를 찾아봐도 모르겠고, 활용면에서도 이렇다할 방안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이라는 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 예술인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하고 지속하라”고 지적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동갑)은 “(제주도가) 2018년에 도지사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추진하면서 문제를 야기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다”면서 “(올해 5월 매입 시기가) 도지사도 없는 상황이고, 재단이사장도 임기가 다 끝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하면서 의혹만 키우고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제주도의회가 (재밋섬 건물)매입 중단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이뤄졌다”면서 “또 민선 8기 출범을 앞뒀서 도지사 공백기에 매입을 결정하는 것은 폭거다.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오만방자한 행정은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고준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계약서상에 행정 절차상으로 중단됐었던게 해소되면 이행해야 되는데 위약금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양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면서 “처음부터 집행부가 플랫폼 역할로

서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지 않고 위약금 처리 문제 등을 생각하다 보니 매입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졸속행정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고 국장은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태윤기자

“제주 체육계 병폐 차단 대책 필요”

“인권상담소·공정감찰단 등
도체육회로부터 독립 운영”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지역 체육계의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인권상담소와 스포츠공정감찰단을 제주도체육회로부터 독립,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인권침해, 폭행 등 악습을 끊으려고 도 체육회에 인권상담소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감찰단을 발족해도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도체육회를 감찰하는 조사기구가

내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체육계의 병폐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제주도 체육계의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 제주분관을 유지하거나 인권상담소 설치와 스포츠공정감찰단을 각 행정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 조정 제안도 나왔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흥동)은 “제주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이직율이 2018년 42%에 이른다”며 “근속수당인 경우 1~4년은 근속수당이 전혀 없으며 5년 근무자와 10년 근무자간 수당은 1만원 차이이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이직을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태윤기자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대책 시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등
전문기관·신산업 육성 필요”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없는섬 2030’ 정책 추진으로 도내 태양광, 풍력발전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선 가운데,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407회 임시회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이날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갈굴 폐원지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블레이드 폐기 처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사에서 운용하는 풍력발전기의 내구 연한이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에 발생했던 풍력발전기화재 등 유지보수와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명이 다한 풍력발전기를 해체해 처리해야 할 텐데, 특히 블레이드는 유리섬유와 탄소섬유 등 복합재료로 이뤄져 있어서 처리도 어렵고 그 무게도 상당하다. 폐 블레이드 처리할 수 있는 제주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방안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이날 질의를 통해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시장은 EV(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분야로 사용 후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며 “재사용 배터리 처리 또는 분해 가능한 민간 전문업체는 전문한 실정으로 민간을 포함한 재사용 배터리 전문기관(기업) 추가 지정 필요 등 선제적 정책이 필요 하다”고 주문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민소통위 설치, 초·중 노트북 타당성 있나”

교육위, 교육청 업무보고 교육감 공약 집중 질타
“유명무실 위원회 줄이는데… PC 보급률 근거는”

제12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8년 만에 교육수장이 바뀐 제주도교육청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선심성’ 공약과 설익은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고, 부실한 업무보고 내용이 지적됐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은 기존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언급하며 “‘미래교육도민소통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지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

주시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은 “정부나 제주도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손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본청에 100명, 지원청에 50여명을 두고 6~8개 분과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6~7명의 인력에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에 161억원이 편성된 초·중 1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선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100억원이 투입된 점과 비교하며 “계획대로라면 5년간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창식 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선거구)은 “제주지역 가정내 컴퓨터 보유율이 59%로 전국 평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고의숙 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균 74%보다 낮다고 했는데, 이것이 학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대학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꺼내며 스마트기기 지급이 자칫 남아도는 재정으로 근거가 부족한 공약을 이행한다는 “발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순문 부교육감이 “그동안 인수위원회 중심으로 공약

추진 계획을 검토했고, 7월 1일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교육청이 맡으면서 시일이 촉박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다. 8월 말까지는 치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고의숙 의원은 “8월 말까지는 추경안 심사를 안 해도 되느냐”고 반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마당에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토지

구합니다

· 제주시 ·

구좌읍

조천읍

조건

① 전원주택용 부지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건축

베네하우스

문의: ☎ 064-723-1105

제주누리

미등기토지연구소

토지전문

토지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귀하가 소유하신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 드립니다.

업무안내

01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 드립니다.

02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03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 드립니다.

[시행 2020. 8.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격시행

2022년 1월 4일부터 기존등지역 묘지도 포함시행!

미등기부동산 지권이 기화됩니다!

올해 8월4일까지가 조치법 기한

상당면적 제주토박이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14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모집

아름다운 동행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는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교육지원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기금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며 후원사업과 문화사업, 홍보사업 등의 연계사업 등으로 기부문화의 중심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동행 할 것입니다.

대상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은 만20세 이하의 환우

신청방법

사무국 내방 상담 후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병원비 혹은 약제비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실확인서

문의 및 신청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TEL(064)752-3300

e-mail:jejubh16@daum.net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촌동길 89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시공 / 징크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